



세계일로 종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다시 안길 땐 절을 하였소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 곳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멀리서도 정답게 불러보았소
노래도 아리랑곡조가 좋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고향 샘처럼 달지 못했소
벗들이 부어준 한모금 물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했소
이국의 들가에 피여난 꽃도

《세상에 북조선같은 나라는 없다》

— 재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의 글중에서 —

북조선에 대해 잘 모르는 해외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은 흔히 북조선을 가리켜 《수수께끼와 같은 나라》라고 말하지만 최고지도자—당—군민이 뚫뚫 뚫진 세계 제 1의 일심단결된 나라라는 의견에는 이견을 달지 않는다. 대부분의 해외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은 《세상에 북조선같은 나라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북녘동포들은 어린이에서 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북미대결전에 대하여서도 조금도 전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른바 《엄전사상》이 전혀 없기때문에 조국반도가 엄중한 시기에 접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안한 기색없이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에 불타고있다. 북녘동포들은 누구를 만나도 일심단결을 가장 자랑으로 내세운다. 핵무기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는 북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은 방문자모두의 관심사이며 대화의 초점이기도 하다. 일심단결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이미 일심단결의 기초를 마련해주신 김일성주석을 시작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평도자에 이르기까지 최고지도자들의 령도에 의해 창조되고 다져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조선최고지도자들이 체현해온 이민위천사상과 인민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성과 그 믿음은 곧 북녘동포들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지극한 흠모와 함께 절대적 충실성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결합된것이 바로 북조선의 일심단결의 핵심이 된다고 북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말한다. 지금 북녘사회분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북미대결전을 맞

기자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서거때에도 이곳 평양분위기를 취재한바 있다. 그 당시 금수산태양궁전에 서 김정은평도자의 손목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과 소감 그리고 그 후에 그분과 북녘동포들의 관계를 취재하면서도 《세상에 북조선같은 나라가 또 있을까.》하고 자문하고 자답한바 있었다. 《이런 사회, 이런 나라는 지구촌에 오로지 북조선밖에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류력사상 이런 일심단결사회를 이룬 나라는 전무후무하다.》는것이 북을 제대로 파악하고있는 사람들의 일관된 관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최고지도자와 군민이 일심단결을 이뤄 하나로 응집된 나라는 이 세상에 북조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로길 남

람 홍 색 공 화 국 기

하시였으며 공화국정권이 전면적으로 계승한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상징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

사들과 영웅전사들이 흘린 붉은 피를 상징하며 령도자를 중심으로 일심단결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필승 불패의 령량을 상징한다. 국기의 흰 동그라미와 두 개의 흰 폭은 조선민족이 수

공화국창건 66돐이 눈앞에 다가왔다. 공화국의 력사를 되새겨보면 한마디로 자주와 선군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 일찌기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의 승인이나 도움이 아니라 철두철미 자주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인민의 리익의 견지에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여왔다.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고 자기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자기 식의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 밑바탕에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이 놓여있다.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킬 강력한 힘도 갖게 되고있기에 공화국은 적대 세력들의 강한 압력과 《제재》, 군사적위협에도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자기가 가는 길을 꿋꿋이 걸어왔으며 한다면 하는 조선의 본래를 그때마다 남김없이 파시하곤 하였다. 하여 지난날 화승총 하나 변변한것이 없어 약소국가의 쓰라린 눈물을 삼켜야 했던 공화국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넘겨다볼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 운반로켓보유국,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되었다. 열병식장들에서 파시된 한계를 모르는 위력한 타격수단들의 철의 행진, 인공지구위성발사, 대지를 진감하며 하늘을 박차오르는 로케트발사시험 등은 자주와 선

지구상에 더는 없다. 《유일초대국》의 고압적인 횡포나 강박도 통하지 않는 조선이야말로 우리 행성에서 작으면서도 큰 나라, 명실공히 자주강국이다.》, 《예수가 와도 할 일이 없는 나라》라고 격찬하고있다. 그러면 북과 잇닿은 저 남녘땅의 실상은 과연 어떤가. 나라의 징표는 자주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에 있다. 외세가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은지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주권없는 세상은 남조선이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대통령》이 미국 세제칙약의 인권 유린지대, 인권말살지옥인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은 수백명의 어린 생명을 수장한 《세월》호침몰사고와 윤일병타살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 군내에서 벌어지는 치명적인 인권유린행위를 통해서도 더 잘 알수 있다. 참으로 남조선이야말로 사대로 찌들은 미국의 식민지이며 파쑈폭압의 란무장속에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인권 불모지이다. 자주와 사대, 정의와 부정의, 사랑과 폭행의 대조속에 관이한 북과 남의 현실은 과연 어느 제도가 진정한 인민의 제도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굳건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로 위용펼치는 공화국의 참모습은 세기와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광 장 호

자 주 와 선 군 에 민족의 존엄과 안녕이 있다

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도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창건지리, 룡라인민유원지, 룡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미림송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 등 사회주의문명국가의 체모에 어울리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은 모두 인민의 꿈과 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기에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 통신들과 인민들은 《조선은 한마디로 모든 것에서 민족자주로선으로 굳게 뚫진 사회》, 《조선과 같이 자주를 정치의 근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일관하게 전지관철해나가는 나라는 이

상전을 할애비로 섬기고 정치인들이 저마다 미국의 눈에 들어주기 위하여 뺄뺄 나게 하는것이 하나의 정치 풍토로 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당국은 상전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은 남녘땅이 초상집판으로 된 속에서도 오바마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갖은 야양을 떨었고 지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해달라고 구걸하는 추태까지 부리었다. 더우기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이며 파쑈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권리와 존엄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지만 현 《정권》이 출현하면서 남조선은 《유신》파쑈통치가 부활되어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강